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958년 졸업생인 조셉 김 박사의 인터뷰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 이야기를 개인적인 서술 형식의 회고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내 여정의 기하학: 30, 30, 그리고 20

김현영 박사 저

86세에서 87세로 나이를 먹어가는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는 뚜렷한 기하학적 구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제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0년, 미국에서 보낸 37년, 그리고 과테말라와 인연을 맺은 20년입니다. *나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 여정을 나누려 준비하면서, 이 세 부분이 하나의 빛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1부: 종로(한국)의 그림자 속 한 줄기 빛

12년 동안 제 유년 시절은 온전히 종로5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중학교, 을지로5가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연건동에 있는 수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까지 동네 곳곳을 옮겨 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 대학 정문을 지나갈 때면 엠블럼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는 그저 하나의 표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전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겨우 7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물질적 성공을 향한 맹렬한 추구가 만연했던 시대였고, 교육은 단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물질주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굳건히 지탱해 준 정신적 버팀목은 대학 로고에 담긴 심오한 철학과 저의 멘토이신 프랭크 W. 스코필드 박사님의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수의사이자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는 제 최고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년에는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나의 빛이다(Veritas Lux Mea)'라는 말처럼 자신의 빛을 억압받는 이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도왔고, 정은찬 전 총리를 비롯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재들을 후원했습니다.

수십 년 후인 2024년, 저는 서울대학교 동문회 미국 총회 참석차 크루즈선에 탑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 관광을 즐겼지만, 저는 일부러 객실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며 교가의 역사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 같은 서구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초기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 이 교가를 도입한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 문명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과 깊은 인연은 제가 자랑스러운 "서울대 수의사상"을 수상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전폭적인 환대를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호암교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스코필드 홀에서 그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 그리고 6개월 후 대학 총장들과 고위 인사들 앞에서 **"스코필드의 정신이 과테말라에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추모 강연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부: 미시 세계와 아메리칸 드림 (미국)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른 살에 가족과 함께 조지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죠. 수의학은 암 같은 만성 질환에 중점을 두는 인의학과는 달리 미생물이 주된 적입니다. 저는 수의미생물학에 몰두하여 2년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로 편입하여 쯏소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케넷 스퀘어에 위치한 7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대동물 연구 센터인 뉴 볼턴 센터에서 제 세상은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일반적인 낙농장은 약 100에이커 규모에 소 100마리 정도를 키우는 곳입니다. 뉴 볼턴 센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연구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학자들까지 그곳에 모였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4시나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비옥한 땅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 지역 낙농업을 개척한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녘에 우유 샘플을 채취하여 유방염과 결핵균을 연구하고, 서둘러 실험실로 돌아와 병원균을 배양했습니다. 고되고도 짜릿한 일이었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수의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저는 펜실베이니아 동물 진단 연구소 시스템(PADLS)에서 수의 병리학자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PADLS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그리고 주립 연구소가 주법에 따라 설립한 독특한 3개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광우병(BSE)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저는 ****면역조직화학 실험실****을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면역학, 조직학, 화학을 융합하여 특정 조직 세포를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색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병원체를 즉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은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에서 발생하는 프리온 질병인 스크래피(Scrapie)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프리온 질병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매우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면역조직화학법을 통해 뇌 조직을 채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동물의 편도선과 눈꺼풀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두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큰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7년제 학사/의학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아름답고 안정적인 삶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과 '진리'에 대한 부름은 여전히 제 영혼에 속삭였습니다.

제3부: 은혜의 삼위일체—빵, 복음, 그리고 치유 (과테말라)

저는 주립 연구소에서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미국 수의학 협회(AVMA)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축 구호 단체인 ****Heifer International****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운명의 반전으로, 제가 대학 시절 한국 천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주었던 새끼 돼지들이 수십 년 전 헤이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에서 보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뿌린 씨앗이 지구를 가로질러 다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기관 소속의 백인 미국인 의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15명의 전문가 평가팀에 합류하여 과테말라의 6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가축 유통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코반에 있는 산카를로스 대학교(USAC) 북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신성한 부름을 받은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접고 아내와 함께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저는 스코필드 박사의 뒤를 이어 무급 방문 교수로 대학에 부임했습니다. 사비를 들여 대학 내에 유제품 질병 진단 연구소를 설립했고, 미국 대학의 농업 확장 모델을 본떠 농촌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한 축산 기술을 가르치는 "염소 5개년 농업 확장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저는 ESL 수업, 성경 공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곧 우리의 노력이 다른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의사, 과학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공식적으로 ****GM Net(과테말라 선교 네트워크)****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저희는 과테말라의 대학교수와 학생 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년간 새마을(새로운 마을) 농촌 개발 모델을 배우도록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두 명은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또 한 명은 GM넷의 핵심 교수이자 기동이 되었습니다.

****마야 의료 클리닉:****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과 협력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외딴 마야 원주민 마을에 의료 센터를 건립했으며, 과테말라 보건부 장관 및 대학 총장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인적 지역사회 돌봄:**** 진료소 주변에 "가정용 가금류 사육"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완전한 자선에서 **50/50** 공동 투자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과 자긍심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불을 피워 조리하는 관행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굴뚝이 설치된 환기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건설했습니다.

에필로그: 디아스포라의 비전

지난 5월, 저희는 애틀랜타에서 첫 번째 **GM** 넷 포럼을 개최하여 핵심 팀원들과 함께 "빵, 복음, 그리고 치유를 실천으로 옮기다"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는 발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전 세계와 저희의 통합적인 팀 사역 모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GM Net은 11명의 핵심 리더들이 이끌고 있으며, 그중 7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입니다. 이 7명 중 3명은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각각 미술, 의학,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팀의 아티스트는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뉴스레터와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심었던 '진실이 곧 나의 빛'이라는 씨앗이 중앙아메리카 산악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하나의 힘으로 꽃피운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록 저는 물리적으로는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의 **75%**는 항상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90**세이신데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졸업생 선배님을 보면, '이 비전을 계속 키워나가려면 **90**살까지는 충분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저는 현재 *****하이브리드 비거주 *현재* 임무******라고 부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1년 내내 그곳에 물리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줌(**Zoom**)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은퇴한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즉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연속성을 바탕으로 현지 학자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실험 장비를 기증하기 위한 연례 방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은퇴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거대한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꿈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종로 거리에서 저를 찾아온 바로 그 진실과 빛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